

# Korea Responsible Care Council

Issue No.24  
2010 신년호

## CONTENTS

신년사 New Year's Greetings	■ 정범식, 한국RC협의회 회장, 호남석유화학 사장 ..... 2 Bum-Shick Chong, Chairman, KRCC
제언 My Opinion	■ 글로벌 RC 추진동향 및 국내 RC 실행에 대한 제언 ..... 6 - 요시하라 노리유키, 일본화학공업협회 기술부, 일본 Responsible Care 협의회 사무국장 吉原 紀幸, 日本化学工業協会技術部, 日本レスポンシブル・ケア協議会事務局長代理
RC 토픽 RC Topic	■ 한국RC협의회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실천방안 ..... 10 2010 Project Plan and Practice Method of Korea Responsible Care Council
정책정보 Policy & Information	■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15) 내용과 의의 ..... 18 The Meaning of the 15th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15) to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 조갑호, 한국화학산업연합회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 한국RC협의회 이사 LG화학 상무 Cho, kap-ho KOCIC Chairperson for E&CC(Energy & Climate Change Group) Director of KRCC / Vice President of LG Chem
RC실천사례 RC Implementing Case	■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지역봉사에 관한 활동 ..... 26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and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 호남석유화학 여수공장 Honam Petrochemical Corp. Yeosu Plant
회원사 소식 News from members	..... 36
KRCC 소식 KRCC News	..... 40



## 2020 비전 달성을 위해 힘찬 첫걸음을 떼어야...



정범식 / Bum-Shick Chong  
한국RC협의회 회장 / Chairman, KRCC  
호남석유화학(주) 사장 / CEO, Honam Petrochemical Corp.

친애하는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

2010년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새 희망을 다지는 복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2009년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내 RC추진에 있어 뜻 깊은 한해를 보냈습니다.

Supply Chain을 통한 RC확산을 추진하여 7개 기업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였으며, '한국RC 협의회 10주년 기념식'을 통해 RC 2020 비전 달성을 위한 4대전략 12개 실행방안을 수립·선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회원사 임직원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환경·안전·보건 자율관리의 정착과 화학산업의 홍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글로벌 RC 리더로서 화학산업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이라는 원대한 RC 2020 비전달성을 위한 힘찬 첫걸음을 떼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물론 많은 난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국가적인 화두인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국내외적인 환경·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은 우리 화학산업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와 사회적 압력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안전·보건 개선에 노력하고 그 성과를 알림으로써 화학산업이 대중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Responsible Care가 있겠습니다.

이에 한국RC협의회에서는 2010년을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의 해로 삼고, “Responsible Care 이행수준 제고 및 화학산업의 홍보강화”를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정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공헌 및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Outreach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부 및 지역사회와 회원사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어 화학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회원사의 RC이행수준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정된지 10년이 된 RC코드를 변화된 상황에 맞도록 업데이트 하여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분을 강화하고, 외부자문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RC실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화학산업과 화학산업이 펼치는 RC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회원사의 다양한 RC우수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화학 산업의 사회적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고, 화학산업 및 RC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일반대중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upply Chain을 통한 RC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회원사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RC를 홍보하고, 동참을 유도하는 등 국내 화학 산업에서의 RC 확산에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규회원사내 RC 실행 및 빠른 정착을 위해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절전지훈(折箭之訓)’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는 화살도 여럿 모이면 꺾기 힘들 듯이 모든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RC의 미래 10년을 열어가는 힘찬 도약의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글로벌 RC 추진동향 및 국내 RC 실행에 대한 제언

요시하라 노리유키 / 吉原 紀幸  
일본화학공업협회 기술부 / 日本化学工業協会技術部  
일본 Responsible Care 협의회 사무국장 / 日本レスポンスフルケア協議会事務局長代理

### 1. 서론

지난해, 한국RC협의회(이하 KRCC)의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Responsible Care®(이하 RC)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KRCC 뉴스레터에 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RC 추진 현황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2. 일본의 RC활동 경위

화학제품은 사람들의 생활을 풍부하고 편리하게 만들며 화학제품이 없으면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생활 속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화학제품을 잘못 취급하면 사람의 건강 및 안전,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RC활동은 화학제품의 제조에서부터 사용한 후 폐기에 이르기까지 확실히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RC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Product Stewardship(PS), Global Product Stewardship(GPS)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RC활동경위를 간단하게 되돌아보면, 이른바 고도경제성장기인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화학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의 제조 공정에서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며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법률에 의한 규제는 준수하고 있었지만, 그 밖의 영향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화학산업은 이러한 문제들을 깨닫고 일본화학공업협회(이하, JCIA)를 통해서 유해배출물질저감에 노력하며 1980년경에는 거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었지만, 화학산업은 법률에 의한 규제준수보다 자발적으로 유해물질 저감에 임하였고, 이 시점

이 일본 화학기업내에서 RC의 기본윤리가 싹트게 된 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 1995년 JICA 내에서 일본Responsible Care®협의회(이하, JRCC)를 설립하며, 체계적으로 RC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기업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방재, 유해물질 배출저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검증제도를 통해 그 성과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인근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제품 Supply chain에 걸친 1차 고객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화학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Product Stewardship(PS)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왔습니다.

### 3. 아시아에 있어서의 향후의 활동

현재, 아시아의 화학산업은 크게 발전하고 있고 경제는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처럼 기업과 사회의 생산 및 소비활동에서 문제점이 쉽게 발생할 가능성이 염려되지만 과거 일본의 선진공업국과는 달리, 우리는 RC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RC활동을 전개해 나가면 좋을까요?

각 국가와 기업이 처해있는 상황은 다르며, 획일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방법은 없습니다. 각국의 화학공업협회에서는 자국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첫째로, 화학기업이 회사내에서 실천 할 수 있는 환경·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다음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자를 넓혀가며 단계적으로 활동을 펼쳐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RC활동은 화학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의 핵심이며, 화학제품의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목표를 갖고 RC활동을 실행하지만, 각 국가와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RC 활동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을 실행하여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기업의 RC 우수사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보다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할 수 있는 활동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좋은 성과를 내는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각국의 정부는 화학제품을 관리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항들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률로 제정되어 있어도 이것을 준수하는 기업의 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RC활동은 기업의 자발적 활동이며, 법률로 규정할 수 없는 것도 법률의 정신에 의거해 자발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RC활동이 법률로는 규정할 수 없는 틈새를 메꾸는 역할을 함으로써 각국의 화학제품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기업의 RC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RC활동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아시아 각국에는,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의 기업도 많이 진출해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대다수는 RC활동을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실천하며, 아시아 각국의 RC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을 중심으로 각 기업이 그 나라에서 어떠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국제화학단체협의회(ICCA)는 RC의 전 세계 확산을 목표로 RCLG(Responsible Care Leadership Group)를 조직하였고, 아시아 각 나라의 협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RCLG는 RC활동의 질적 향상과 RC활동에 참가하는 나라의 확산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RC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RCLG는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사하고 계획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개국이 가맹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RC기구(APRO)는 지금까지 아시아태평양RC대회(APRCC)를 주최하기 위해서 설립된 조직이었지만, 향후 그 활동 범위를 넓혀 아시아 각국에서의 RC활동 향상을 위해 운영하자는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 향후 어떻게 활동해 나가는가 하는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각 나라와 토의하고 결정해 갈 예정입니다. JRCC/JCIA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일본정부에 의한 아시아 지원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각국의 RC활동의 Capacity Building를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정부와 협력을 유지해 나가면서, 아시아의 화학제품 관리를 어떻게 지원해 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활동해 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RC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RC코드를 마련해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RC활동은 단지 메뉴얼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내의 "화학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람들의 건강 및 안전, 환경을 해롭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윤리

를 확립하는 활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RC활동의 실천을 명확하게 맹세·선언하고, 근로자 개개인이 확실히 그러한 윤리관을 가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착실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고, 이러한 실천은 반드시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기업도 일반 시민으로써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없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실시한 기업은 사회로부터의 퇴장을 당합니다. 화학산업은 RC활동을 계속 실천함으로써 사회의 신뢰를 거두어 향후에도 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 한국RC협의회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실천방안

지난해 한국RC협의회는 '국내 RC추진 10주년 기념식'을 통해 2010년을 「글로벌 RC 리더로서 화학산업의 지속가능 발전 달성」을 위한 원년으로 정하고, ▲제품 전 과정 책임주의 이행 ▲이해관계자들의 대화 채널 확대 ▲환경·안전·보건의 자율관리 확립 ▲RC 활동의 내실화 등 4대 전략, 12개 실행방안이 포함된 RC 2020 비전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Responsible Care® 이행수준 향상 및 화학산업 홍보강화'를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① 사회공헌(Outreach) 및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제고, ② RC Fundamental 이행강화 활동, ③ RC코드 이행수준 제고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추진, ④ RC 및 화학산업 홍보강화, ⑤ 회원사 정보교류 촉진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10년은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10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시점으로 한국RC협의회는 전세계 화학기업과 함께 더욱 활발한 Responsible Care®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개최

화학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행사는 금년에도 부산, 여수, 울산, 서산의 4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09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 서산지역(09.8.22)의 행사만 진행되고 나머지 지역의 행사는 취소되었으나, 2010년에는 더욱 새롭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행사를 계획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화학산업 홍보동영상을 8년만에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춘 최신 영상자료(애니메이션)로 대체하는 것을 계획 중이며, 과학실험은 더욱 다양하고 흥미를 돋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회원사 운영 부스 확대 등을 추진하여 동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화학의 재미와 중요성을 느끼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 ◆ RC 코드 개정

한국RC협의회는 지난 2001년 회원사 담당자들과 함께 4개코드(근로자의 안전보건, 공정안전, 오염방지,



비상대응)를 제정하였으며, 국제적인 흐름인 RC 6개코드 체제로의 편입을 위해 지난 2006년에는 2개코드 (제품전과정책임주의, 유통) 추가 및 1개 코드 확대(비상대응→지역사회인식과 비상대응)를 추진한 바 있다.

앞서 제정된 4개 코드의 경우 제정된 지 10년이 지나, 그동안 변화된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RC협의회 사무국은 협회 내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RC 6개코드 전반에 걸친 수정 및 보완 등 개정을 2010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RC코드 개정을 통해 회원사 담당자들이 RC코드를 실행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해지고, 다른 환경안 전규제 및 인증들과도 조화되는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외부자문평가제도 기반구축

RC코드 평가결과의 대외적인 객관성을 높이고, RC실행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질적 향상을 위해 한국 RC협의회는 지난 2004년부터 외부자문평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지난해 연례워크샵에서 사무국은 추진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다만 회원사의 협조와 자발적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점진적 추진계획에 따라 2010년에는 외부자문 평가에 대한 회원사와의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외부자문평가 실행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외부자문평가 TF 조직 및 운영, 외부자문평가 프로토콜 및 절차 제정, 외부자문평가단 구성논의 등이 진행될 것이다.

외부자문평가 시행을 통해 환경·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 자문 및 정보교류를 통한 RC활동의 상향 평준화 등이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RC협의회는 외부자문평가가 회원사에 부담을 주는 감사가 아닌 기술자문과 지원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 RC Fundamental Features 이행강화

국제적으로 권장되는 RC 이행방법을 정리한 것이 8 Fundamental Features로서, ①Guiding Principles, ②Name&Logo, ③Codes&Guides, ④Indicators, ⑤Communications, ⑥Sharing, ⑦Encouragement, ⑧Verification 의 8가지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RC를 실행한다는 것이 주로 ③번, 즉 Code 실행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RC를 실행하는 것은 결국 8가지 모두에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차원을 크게 넘어서는 일이다.

이에 한국RC협의회 사무국에서는 회원사의 8 Fundamental Features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임 대표이사에 대한 환경·안전·보건에 관한 기본방침 서명갱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RC로고와 명칭을 회원사 홍보자료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여 다양한 RC 추진을 촉진할 예정이다.

### ◆ Supply Chain을 통한 RC 홍보/확산

지난해 제10기 정기총회('09.2.27)에서 정범식 한국RC협의회장(호남석유화학 사장)은 협력업체의 RC도입 및 실행을 통한 자율적 환경·안전문화의 확산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호남석유화학에서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RC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대성산업가스, 덕양에너지, 선도화학, SPG케미칼, 창신화학, 태경화학, 한수 등 7개사의 신규회원 가입을 완료하였다.

한국RC협의회에서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이사회 소속 회원사를 중심으로 Supply Chain을 통한 RC홍보 및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회원사 내 RC 실행 및 빠른 정착을 위해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 ◆ RC로고 변경

WSSD, UNEP 등 국제기구들은 RC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화학산업의 기여방안이라고 인정한 바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RC와 지속가능발전과의 연계성을 가시화시키는 차원에서 전세계 RC추진을 관장하는 ICCA(세계화학단체협의회) RCLG(세계RC추진그룹)에서는 기존 RC로고에 'Our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라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CEFC(EU) 등이 RC로고를 변경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한국RC협의회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RC로고 수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만 영문 표기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문의 취지를 살리면서 일반인들도 알아보기 쉬운 국문 표현을 기존 RC로고에 첨부할 예정이다.

## ◆ KRCC 아카데미 - 환경안전 교육세미나 추진

한국RC협의회는 회원사 담당자들의 환경안전 최신정보 습득, 환경안전관련 정책 소개, 회원사 담당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KRCC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0년에도 안전기술 향상관련 및 환경정책관련 세미나, 다양한 정보 및 강연이 준비되는 연례워크샵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회원사에 영향이 큰 현안에 대해서는 설명회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 ◆ RC 및 화학산업 홍보강화

한국RC협의회는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행사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의 용도를 확대 하여, 행사 참가학생 이외의 일반대중에 대해서도 화학산업 및 RC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RC 및 한국RC협의회 활동내용에 대한 미디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회원사들의 협조를 얻어 지역 언론에 대한 한국RC협의회 행사 및 동정에 대한 보도를 강화하고, 협의회 내 홍보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공중파에서 한국RC협의회 행사에 대해 보도를 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 사무국 및 회원사에서 RC에 대해 홍보 및 소개를 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RC와 화학산업에 대한 간략한 홍보내용을 담은 RC 리플렛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한국RC협의회는 화학산업이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사랑받는 그날까지 '국내 RC 이행 확산 및 화학산업의 홍보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회원사 및 화학산업 종사자들의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국내 RC 추진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한국RC협의회 사무국 ☎ 02-3668-6172, E-mail : rcmaster@krcc.or.kr

##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15) 내용과 의의



조 갑 호  
한국화학산업연합회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  
한국RC협의회 이사 / LG화학 상무

### 1. 회의 개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주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가 주관하는 국제회의로서 협약 당사국 대표, 국제 기구 대표, 세계 각국의 NGOs 등 약 4만여명이 참가하여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각국의 지대한 관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회의 막바지에는 세계 110여 개국 정상들이 직접 참석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우리나라는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과 산업계, NGO, 언론계 등의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필자는 우리나라 산업계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총회를 참관하고 현지에서 개최된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회의원, 기자단과의 개별적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 화학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총회는 세계 각국이 새로운 미래를 쓰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언급하고 선진국의 중기 감축목표 강화, 개도국의 기준 전망치 대비 배출증가 제한, 적응 프레임워크, 재정 및 기술지원, 투명하고 공정한 거버넌스를 강조하며 공정하고 야심차며 포괄적인 합의문(agreement)의 채택을 요청했다. 또한 2010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협정(legally binding climate treaty)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토체제의 지속을 주장했다.

100여 개국의 정상들이 모인 UN 기후변화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라는 형태로 끝맺음을 했다. 그러나, 금번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민감한 주요 쟁점들을 미해결 과제로 남긴 정치적 합의문 수준이므로 2010년에도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2. 협상 경과

협상 1주차에는 덴마크 의장 초안 유출 사건, 선·개도국간 신경전, 개도국의 보이콧 등으로 협상에 실질적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 협상 마지막날, 갑자기 덴마크측이 각 소그룹별 대표국가와 협의해 만든 정상 합의문 초안을 한국을 포함한 주요 25개국에 회람하며 문안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그 후 우리나라,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 등 25개국 정상들이 모여 정상 합의문 초안을 직접 협의해 약 16시간여 만에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총회에서는 난상토론 끝에, 정상 합의문(Copenhagen Accord) 초안을 결정문으로 “채택(adopt)”하는 대신 “주목(take note of)”하는 것으로 해 법적 구속력이 약한 형태로 최종 결정되었다.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한편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오후 ‘다함께 행동을’(Taking Action Together) 이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코펜하겐 회의의 인류·역사적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해 ‘너부터’에서 ‘나부터’의 정신으로 전환하는 ‘Me First’ 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Me First’ 정신에 근거한 우리의 기후변화대응 노력, 즉 개도국의 투명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감축행동 등록부(NAMA Registry)를 제안하고,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못지않게 ‘어떻게’ 줄이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파트너십 기구 설립도 제안했다. 또한 2010년 상반기 중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설립을 발표하고 Post-교토체제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고자 오는 2012년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한국 유치의사를 표명했다.

## 3. 정상합의문(Copenhagen Accord)의 주요 내용

이번 총회의 최종 결과로 승인된 ‘코펜하겐 합의문’은 선진국의 감축목표 및 개도국의 감축행동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문에 그쳤으며 작년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던 약속을 연장하여, 2010년까지 법적 효력을 가진 협약으로 완성하기로 약속했다. 선진국, 개도국 모두 자국에 부담이 되는 어떤 숫자의 결정도 거부했다. 선진국은 현 IPCC 권고 수준인 1990년 대비 25~40%에 훨씬 못 미치는 16~23% 수준의 감축목표 수준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목표 상향 조정은 반대했다. 개도국도 ‘2050년까지 전지구적으로 1990년 대비 50% 감축’ 문구를 삭제하는 등 자국에 부담을 주는 약속은 거부했다.

선진국은 차기 공약기간에서 교토 체제를 유지하고, 미국 및 개도국은 새롭지만 구속적이지 않은 틀 안에서 감축 행동을 이행하기로 했다. 선진국의 감축목표는 국가별로 Appendix I에 기재하고 개도국의 자발

적 감축행동은 국가별로 Appendix II에 반영하여 각국은 2010년 1월말까지 등록할 예정이다.

중국이 거부해왔던 자발적 감축행동에 대한 국제적 검증 허용의 절충안으로 '국내적인 검증'을 기본으로 하되, '주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적 협의와 분석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은 기존의 국가보고서를 통해 보고(2년 간격)하되 국제적 지원을 받는 개도국의 감축행동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NAMA registry에 등록하고 국제적 측정, 보고, 검증(MRV)을 받도록 했다. 재정적 경우, 당초 기대했던 국가별 구체적 부담수준은 정하지 못하고, 선진국들이 2010~2012년까지 총 300억불, 2013~2020년까지 매년 1000억불 지원한다는 목표 설정으로 완화되었다.

<COP15 정치적 합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장기 목표	-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C를 넘지 않도록 억제한다는 과학적 견해 확인
국가별 목표	- 선진국은 2010년 1월 말까지 2020년의 계량화된 감축목표를 제출 (교토의정서보다 강화된 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기준연도 명시) - 개도국은 감축계획 보고서를 2010년 1월말까지 제출 (감축 실행 방안 포함. 기준연도는 없음)
법적 구속력	- 2010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채택한다는 내용은 협의 과정에서 삭제
빈국 지원	- 2020년까지 선진국들은 연간 1천억 달러의 코펜하겐 그린 플래닛 펀드 (Copenhagen Green Plant Fund)를 조성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은 300억달러를 긴급 지원 - 유럽 연합 (EU) 106억달러, 일본 110억달러, 미국36억달러 출연
온실가스 감축	- 선진국 목표, 개도국의 자발적 약속 등 2개의 부속서 마련
검 증	- 개도국은 감축 노력을 모니터링하고 2년마다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 - 국제적 점검은 하되, 국가 주권이 존중되는 것을 보장
탄소 시장	- 대책의 비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장 활용 추구

#### 4. 향후 협상의 주요 쟁점

앞으로 진행될 협상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우선 선진국 중기 감축목표의 상향 조정 여부이다. 내년 봄 미국 상원에서는 청정에너지법안상의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수준을 확정하기로 되어있다. 또한 기타 선진국들의 중기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조건부 목표의 경우 조건을 떼어내느냐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다음으로는 선·개도국 감축목표의 법적 구속력 확보 여부이다. 미국은 선·개도국 감축목표가 동일하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도국은 선진국의 감축목표만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번째 쟁점은 중국 등 개도국의 자발적 행동에 대한 검증 허용 여부이다. 미국 상원은 중국의 감축 행동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주권 침해 측면에서 허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마지막 쟁점은 개도국 재정 지원에 관한 선진국 부담 수준 문제이다. 개도국 지원시 재정 소요액의 공공·민간 자금 비율, 선진국간 재정부담의 배분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5. 맺음말

국내 산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의무감축국으로의 신규 편입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현재의 의무감축국, 비의무감축국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가 발표했던 중기 감축목표(BAU 30%)는 자발적으로 비의무감축국을 위한 Appendix II에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측정, 보고, 검증'을 하되, 주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적 협의와 분석을 허용하고 있다.



<덴마크 왕궁에서 산업계 대표단과 함께>

가장 우려되던 국가경쟁력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해 있어, 철강, 석유화학 등 경쟁 업종에서 직접적인 경쟁력 피해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각지로부터 4만명 이상이 대거 운집하여 2주간 열린 이번 총회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해 실망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이라는 기본적인 틀 자체가 깨질 수도 있었던 최악의 상황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우여곡절이 심했지만 나름대로의 합의문을 끌어내고 추가적인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 관련하여 국제적인 논의 동향은 전망하기 어렵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우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의지가 매우 강하므로 우리 기업들은 국가 정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지역봉사에 관한 활동

호남석유화학(주) 여수공장

호남석유화학(주)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인 사회공헌활동 즉,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지역봉사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아시아 최고의 화학기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호남석유화학은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공헌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장별 지원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위해 2007년부터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활동이 일회성이나 가시적 활동, 단순한 기부행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하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계장치 등 자재의 현지구매를 늘려가고 있으며,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마찰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호남석유화학은 지역민과의 상생협력하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사회구성원들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다가갈 것이다.

[사회공헌활동 중장기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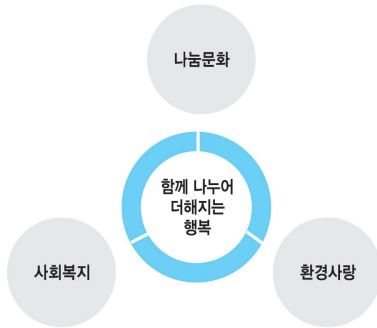


\* 호남 M·B·P: 호남 M·B·P는 Most Beautiful People의 약자로 봉사포인트를 가장 많이 쌓은 직원에게 해외봉사활동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나눔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칭그랜트와 우수리 제도</li> <li>• 공장 인근마을 발전기금 지원</li> <li>• 사랑 나눔 바자회</li> <li>• 중고 PC 기증</li> <li>• 도서 기증</li> </ul>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매마을 종합사회봉사활동(1사 1농촌·1어촌)</li> <li>• 연말 사회봉사활동</li> <li>• 지역 사회복지시설 후원</li> <li>• 사랑의 김장 담그기</li> <li>• 사랑의 쌀 배달</li> <li>• 농번기 대민지원</li> <li>• 차상위계층 어린이 서울현장체험학습</li> <li>• 지역학교 현장체험학습</li> <li>• 2008~2009년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참여</li> <li>• 제5회 화학탐구 프린티어 페스티벌</li> <li>• CEO 공학교육</li> </ul>
환경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자연정화활동</li> <li>• 푸른 여수 꾸미기</li> <li>• 서해안 원유유출 재해복구 자원봉사</li> <li>• 공장 내외에 수목 식재</li> </ul>

## 1. 나눔문화

### ◆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와 우수리 제도

매칭그랜트와 우수리 제도를 도입하여 CEO부터 사원까지 전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으로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나아가고 있다. 사원의 기부 금액만큼 회사가 동일한 규모의 지원금을 내는 매칭그랜트 제도와 직원들의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금액을 적립하는 우수리 제도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호남석유화학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우수리 기금 활용 자원봉사팀 발대식>

### ◆ 공장 인근마을을 발전기금 지원

공장 인근마을에 매년 마을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우수학생과 모범학생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2. 사회복지(봉사활동)

### ◆ 자매마을 종합사회봉사활동(1사 1농촌, 1어촌)

호남석유화학은 농어촌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집수리, 마을공동시설 보수, 마을청소, 의료 및 방역



활동, 마을 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마을행사와 초청행사를 통해 상호 교류와 이해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 왔다. 2008년부터 상호교류를 보다 확대하여 지역민과의 유대강화에 힘쓴 결과 149가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 자매마을 주민 공장방문 및 경로관광 지원

매년 5월 가정의 달에 자매마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로관광을 실시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공장으로 초청하여 관광과 함께 선물도 전달하고 있다.

◆ 자매마을 명절선물 증정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는 마을 가구 수 기준으로 선물을 준비한 후 직접 방문하여 전달을 하고 있다.

◆ 자매마을 일거리 창출 지원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일거리 창출의 명분으로 연 2회 공장 주변의 제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 사랑의 집 고치기

임직원들의 우수리 기부로 모금된 금액을 자원봉사협회의 산하 희망봉사회에 전액 기부하여 자매마을 불우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연말 사회봉사활동

연말이 되면 사회봉사활동을 총정리하면서 1년간의 활동들을 되짚어보고, 특히 동절기에 대비하여 겨울나기 용품 및 후원금 등을 지역 마을과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열기도 한다.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연말이 되고자 호남석유화학의 사회봉사단은 지역의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다.



<자매결연 협약식>



<자매마을 주민 공장방문>



<사랑의 집 고쳐주기>



### ◆ 지역 사회복지시설 후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인 남산요양원 외 7개 시설을 찾아 쌀감, 밀반찬,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는 등 소외계층에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행사에 참여하여 시설의 어려운 점을 청취, 차후에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 ◆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택 내 텃밭에서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배추와 무로 임직원 부녀회에서 김장을 담가 지역 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직접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있다.

### ◆ 사랑의 쌀 배달

매년 5월 가정의 달에 사랑의 쌀배달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랑의 쌀 배달은 소외된 가정의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영세민을 대상으로 임직원이 2인 1조를 이뤄 쌀과 부식을 들고 직접 배달부가 되어 전달하는 봉사활동이다. 이 예산은 혁신활동 제안포상금을 기부하여 마련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의 소외된 계층과 함께하는 좋은 세상 만들기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



<불우이웃에 생활용품 전달>



<사랑의 쌀 배달>



<지역학교 현장체험학습>

## 3. 사회복지(미래세대 육성)

### ◆ 차상위계층 어린이 서울현장체험학습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계층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서울 현장체험학습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낙도에 있는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2박3일 일정으로 청와대를 비롯하여 63빌딩 아이맥스영화관·전망대, 청계천, 경복궁, 용산전쟁기념관, 롯데월드 등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 지역학교 현장체험학습

지역사회의 교육지원 활동으로 지역내에 위치한 유치원생을 비롯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대상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4. 환경사랑

#### ◆ 지역사회 자연정화 활동

호남석유화학은 기업 내부 차원의 친환경경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친환경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친환경 활동으로 1사 1하천, 1사 1산, 1사 1도로 가꾸기 등 인근 지역 저수지, 수로, 해상, 산, 도로를 대상으로 매월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 ◆ 푸른 여수 가꾸기

2012년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푸른 여수 가꾸기'에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하천변, 공한지, 이면도로, 공원, 오동도 등지에서 정화활동을 벌이며 아름답고 청결한 여수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푸른 여수 가꾸기>



## ● 바이엘코리아 대표이사 변경(프리드리히 가우제)

'더 나은 삶을 위한 과학(Science For A Better Life)'을 추구하는 바이엘 코리아는 2009년 7월 1일부로 프리드리히 가우제(Friedrich-Wilhelm Gause) 현 바이엘헬스케어코리아 대표를 (주)바이엘 코리아 CEO겸 한국내 바이엘그룹 대표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프리드리히 가우제 신임 대표는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의 풍부한 전략적 마케팅 경험을 발휘하여 바이엘 코리아의 국내 비즈니스의 중장기 발전 전략 개발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리히 가우제

## ● LG MMA의 2009년도 하반기 환경·안전·보건 관련 대외수상 내역

### • 환경친화기업 재지정

LG MMA는 최고경영자의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전 조직원의 참여하에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와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환경친화기업에 2004년에 이어서 올해 7월 17일부로 재지정이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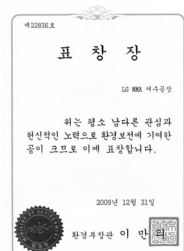
(지정기간 : 2009년 7월 17일~2014년 7월 16일)

### • 행정안전부장관 유공표창

지난 11월 9일 제 47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LG MMA 여수공장이 자위소방대 운영 등의 소방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 환경부장관 표창

지난 12월 31일 LG MMA 여수 공장이 환경관리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 한국에카화학 - 군산은파에 시민 편의시설 기증 기념행사 가져

군산산업단지내 화학분야 선도 제조업체인 한국에카화학이 2009년 9월 11일 군산시민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시민의 휴양지 은파관광지에 정자, 벤치 등 시민 편의시설물을 설치하여 군산시민 뿐 아니라, 군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였다.

이날 기념행사를 통해 이재훈 대표이사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며,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노력으로 군산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산 시민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기념식 후 한국에카화학 전 직원은 쓰레기봉투와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은파관광지 내에 있는 물빛다리부터 입구주차장까지 각종 오물과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 ● 호남석유화학의 대산공장 2009년 하반기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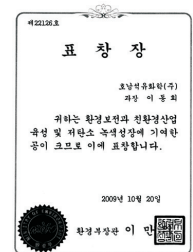
### • PSM(공정안전관리, Process Safety Management) 등급 재평가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약 14개월에 걸쳐 PSM 재평가 준비를 하였다.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반복 교육과 지도점검, PSM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추진상황을 Monitoring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2009년 10월 PSM 등급 재평가에서 호남석유화학 대산공장은 종합점수 94.1이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획득하였고, 일약 M-등급에서 P등급으로 급상승을 기록한 최초의 사업장이 되었으며 아울러 자율안전관리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4년간 노동부 지도점검을 면제 혜택을 받았다.



### • 친환경 공법 적용으로 환경부문 수상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회수를 목적으로 호남석유화학 대산공장에서 자체 개발한 친환경 공법인 순산소 공법을 적용, EG공장에서 소각되는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RTO 설비를 도입, 소각하여 대기로 방출하던 이산화탄소를 회수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로부터 "친환경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공로포상"을 수상하였다.





## ● APRCC 2009 회의 참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RC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APRCC(Asia Pacific Responsible Care conference, 아시아태평양RC대회) 2009 회의가 지난 10월 18일(일)~21일(수)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지속가능발전과 Product Stewardship」을 주제로 각국의 RC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RC 및 환경·안전·보건 전반에 걸친 현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Process Safety Session> 삼성토탈의 정량적 위해성 평가(이재학 팀장), <Greenhouse Gas Reduction Session> LG화학의 기후변화 대응전략(박인 팀장),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ession> 호남석유화학의 안전문화(공영삼 팀장) 등 국내 3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 ● 2009 RC연례워크샵 개최

한국RC협의회는 2009년 11월 26일~28일 제주KAL호텔에서 이보원 회장 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RC연례워크샵을 개최하였다. 화학산업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사 임직원 및 RC 코디네이터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는 동 워크샵에서는 RC 추진사례 외에도 화학산업의 기후변화 대응방안, 화학물질 관리, 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논의가 있었다.

주 제	발 표 자
<b>Session I</b> (화학산업의 기후변화 대응방안)	
국내 배출권 거래제 추진동향	박영구 아주대학교 교수
온실가스인벤토리 MRV 추진방안	김찬규 에너지관리공단 팀장
<b>Session II</b> (리더십)	
미래 경영환경의 변화와 리더십	공병호 경영연구소 대표
직장인으로서 성공철학	허원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장 (한화석유화학 부회장)
<b>Session III</b> (RC추진사례)	
한국바스프의 RC 실천사례	김경옥 한국바스프 상무
RC 외부자문평가제도 추진(안)	KRCC 사무국
<b>Session IV</b> (화학물질 관리)	
GPS(Global Product strategy) 소개	정제억 KOCIC CP&H 위원장
국내화학물질관리제도 및 정책방향	이지윤 환경부 화학물질과장



## ● 2009년 제3회 총무위원회 개최

한국RC협의회는 2009년 12월 18일(금) 16시 한국RC협의회 회의실에서 김주현 총무위원장(호남석유화학 이사) 외 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제3회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사회 및 총회 심의안건인 2009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RC로고 수정심의 건, 임원 개선의 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 ● 한국RC협의회 10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RC협의회는 2009년 10월 28일(수) 11시 호텔신라 다이너스티홀에서 회원사 대표이사 및 RC코디네이터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RC협의회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정범식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중으로부터 외면 받는 산업은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화학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경제적 기여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 RC 활동을 통해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어 진행된 비전 선포식에서 「글로벌 RC 리더로서 화학산업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RC 2020 비전으로 선언하고, 이를 위해 '4대 전략 12개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 ● 행사개요

○ 일 시 : 2009년 10월 28일(수) 11:00~13:00

○ 장 소 : 호텔신라 다이너스티홀(2층)

○ 후원사 : 한국RC협의회 이사회 관련 16개사

\*호남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동서석유화학, 동우화인켐, LG화학, 여천NCC, 한국바스프, 금호석유화학, 남해화학, 랑세스코리아, 삼성정밀화학, 삼성토탈, SK에너지, 엑손모빌코리아, 제일모직, 한화석유화학

○ 참 석 : 국내외 환경·안전·보건관련 정부기관 및 기업 임직원 150명

○ 주요내용

① 기념사(정범식 한국RC협의회 회장, 호남석유화학 사장)

② 축 사(이병욱 환경부 차관, 허원준 KOCIC 회장, Yasumi Shiozaki RCLG 부회장)

③ 축하 영상메세지

- Brian Wastle (캐나다 화학산업협회 부회장)
- S.K.Hazra (ICC, 인도 화학산업협회 회장)
- Bernhard Thier (CEFIC, 유럽 화학산업협회 RC분과장)
- Debbie Jackson (ICCA, 커뮤니케이션 분과장)
- Ulrich Lehner (VCI, 독일 화학산업협회 회장)
- Kenny Sun (AICM, 홍콩 화학산업협회 RC분과장)





④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식

- 감사패 (역대회장, 정부 및 유관기관 등 6명)  
이정호 1대회장, 노기호 2대회장, 허원준 3대회장  
환경부 화학물질과장,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장
- 공로패 (회원사 6명)  
황무영 공장장(Dow), 김경옥 상무(BASF), 공영삼 팀장(호남석유화학)  
박 인 팀장(LG화학), 김영찬 본부장(석유화학공업협회)

⑤ 국내RC10년, 미래10년 영상자료 상영

⑥ 비전선포식 : 「글로벌 RC 리더로서 화학산업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RC 2020 비전으로 선언하고, 이를 위해 '4대 전략, 12개 실행방안'을 제시함

⑦ 건배제의(이정호 초대회장)

⑧ 오찬 및 폐회

\*오찬 전 국제RC동향 설명 (Yasumi Shiozaki RCLG 부회장)



기념사(정범식 한국RC협의회 회장)



축사(이병욱 환경부 차관)



축사(허원준 한국화학산업연합회 회장)



축사(Yasumi Shiozaki RCLG 부회장)



감사패수여(역대회장)



감사패수여(유관기관)



공로패수여(회원사)



RC 2020 비전선포식



건배제의(이정호 1대회장)



## 회원사 (List of Member Companies)

### 일반회원/ Full Members

- ◆ ㈜공리양행 Connell Bros. Company, Ltd.
- ◆ 금호미쓰이화학(주) Kumho Mitsui Chemicals, Inc.
- ◆ 금호석유화학(주) Korea Kumho Petrochemical Co., Ltd.
- ◆ 금호폴리켐(주) Kumho Polychem Co., Ltd.
- ◆ 금호피앤비화학(주) Kumho P&B Chemicals, Inc.
- ◆ 남해화학(주) Namhae Chemical Corp.
- ◆ 대림산업(주) Daelim Industrial Co., Ltd.
- ◆ 대성산업가스(주) Daesung Industrial Gases Co., Ltd.
- ◆ 대한유화공업(주)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Co., Ltd.
- ◆ ㈜덕양에너지 Deokyang Energen Corporation
- ◆ 동서석유화학(주) Tongsoh Petrochemical Corp., Ltd.
- ◆ 동우화인켐(주) Dongwoo Fine-Chem Co., Ltd.
- ◆ 유한회사 듀폰 Dupont(Korea) Inc.
- ◆ 랑세스코리아(유) LANXESS KOREA Co., Ltd.
- ◆ ㈜로엔드하스코리아 Rohm and Haas Korea Co., Ltd.
- ◆ 머크(주) Merk Limited-Korea
- ◆ 바이엘코리아(주) Bayer Korea Ltd.
- ◆ ㈜바커케미칼코리아 Wacker Chemicals Korea, Inc.
- ◆ 삼남석유화학(주) Samnam Petrochemical Co., Ltd.
- ◆ 삼성BP화학(주) Samsung-BP Chemicals Co., Ltd.
- ◆ 삼성석유화학(주) Samsung Petrochemical Co., Ltd.
- ◆ 삼성정밀화학(주) Samsung Fine Chemicals Co., Ltd.
- ◆ 삼성토탈(주) Samsung Total Petrochemicals Co., Ltd.
- ◆ 선도화학(주) Sundo Chemical. Co., Ltd.
- ◆ 쉵커코리아(주) Schenker Korea Ltd.
- ◆ ㈜아케마 ARKEMA
- ◆ 약소노벨아마이드(주) Akzo Nobel Ltd.
- ◆ 애경유화(주) Aekyung Petrochemical Co., Ltd.
- ◆ 앳슈랜드코리아화학(주) Ashland Korea Foundry Products
- ◆ ㈜에보닉데구사코리아 Evonik Degussa Korea Ltd.
- ◆ 에보닉카블랙코리아(주) Evonik Carbon Black Co., Ltd.
- ◆ 에보닉헤드워터스코리아 Evonik Headwaters Korea Co., Ltd.
- ◆ ㈜SH에너지화학 SH Energy & Chemical. Co., Ltd.
- ◆ SK에너지(주) SK Energy Co., Ltd.
- ◆ SK케미칼(주) SK Chemicals Co., Ltd.
- ◆ SKC(주) SKC Co., Ltd.
- ◆ SPG케미칼(주) SPG Chemical Co., Ltd.
- ◆ 에어프로덕트에이씨티코리아(유) Airproduct ACT Korea Ltd.
- ◆ 엑손모빌케미칼코리아 ExxonMobil Chemical Korea
- ◆ LG DOW 폴리카보네이트(주) LG DOW Polycarbonate Ltd.
- ◆ LG MMA(주) LG MMA Corp.
- ◆ ㈜LG화학 LG Chem Ltd.

- ◆ 여천NCC(주) Yeochun NCC Co., Ltd.
- ◆ OCI(주) OCI Company Ltd.
- ◆ 용산화학(주) Yongsan Chemicals, Inc.
- ◆ 이네오스코리아 INEOS Korea Ltd.
- ◆ 이수화학(주) Isu Chemical Co., Ltd.
- ◆ 제일모직(주) Cheil Industries Inc.
- ◆ GS칼텍스 GS Caltex Corp.
- ◆ 창신화학(주) Chang Shin Chemical Co., Ltd
- ◆ ㈜카프로 CAPRO Corp.
- ◆ 케이알코폴리머(주) KR Copolymer Co., Ltd.
- ◆ ㈜케이피케미칼 KP Chemical Corp
- ◆ KPX케미칼(주) KPX Chemical Co., Ltd.
- ◆ KPX화인케미칼(주) KPX Fine Chemical Co., Ltd.
- ◆ ㈜코오롱 Kolon Industries, Inc.
- ◆ 태경화학(주) Taekyung Chemical. Co. Ltd.
- ◆ 폴리미래(주) PolyMirae Company Ltd.
- ◆ 한국다우케미칼(주) Dow Chemical Korea Ltd.
- ◆ 한국다우코닝(주) Dow Corning Korea Ltd.
- ◆ 한국바스프(주) BASF Company Ltd.
- ◆ 한국알콜산업(주) Korea Alcohol Industrial Co., Ltd.
- ◆ 한국에카화학(주) Eka Chemicals Korea Co., Ltd.
- ◆ 한국허큘레스화학(주) Hercules Korea Chemical Co., Ltd.
- ◆ ㈜한수 Hansu Ltd.
- ◆ ㈜한주 Hanju Corp.
- ◆ 한화석유화학(주) Hanwha Chemical Corp.
- ◆ 호남석유화학(주) Honam Petrochemical Corp.
- ◆ ㈜효성 Hyosung Corp.

### 준회원/ Associate Members

- ◆ 대한석유협회 Korea Petroleum Association
- ◆ 한국비료공업협회 Korea Fertilizer Industry Association
-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Korea Specialty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 ◆ 한국클로르알칼리공업협회  
Korea Chlor-Alkali Industry Association
-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Korea Chemicals Management Association
-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Korea Testing&Research Institute for Chemical Industry